

중학생 봉사활동 유형과 지도기관에 따른 자아개념 변화의 분석

원효헌† · 이금순

(† 부경대학교 · 기장중학교)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the types of volunteer activities and guiding organizations

Hyo-Heon WON† · Keum-Sun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Gijang Middle School

(Received September 24/ Accepted November 2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the volunteer activities. The specified subjects for this study are how different is it in the changes of the self-concept and the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of the continuance of volunte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volunteer work and guiding organiz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study, 64 students, the homogeneous ability group, were intentionally assigned in the preliminary inspection of self-concept and 16 students were randomly allocated respectively for 4 groups.

The consequences based on the result are as follow:

First, it has more influence with the group activities than the individual on the changes in the self-concept. But, there isn't meaningful difference by each guiding organization. Therefore, the school has to provide with activating middle school student's activities by developing various weekly and monthly club volunteer activities. Second, for the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of continuance among the guiding organization, it has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group activities only, not in the individual ones. It gives the ground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intensified support to the leaders of the group and grant the incentives to the group of distinguished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sociality, promoting the group volunteer activities.

Key Words: students volunteer activities, self-concept, group volunteer activities

I. 서 론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가 정부, 기업에 이은 ‘제 3의 섹터’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그 관심이 어느 때보

다도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어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164, wonhyo@pknu.ac.kr

그러나, 중학교 사회봉사활동은 시행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몰라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고작 주변 복지시설에 학생을 보내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일선 복지 시설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도움보다는 폐가 많으니 와주지 않았으면 하는 고충도 털어놓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제대로 된 바람직한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몇 가지 방안으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하나의 봉사학습으로 보아 행동경험을 통한 봉사활동과 봉사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이해하는 것,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립정신과 상호 존중, 이해, 넓은 시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성과 봉사심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청소년들에게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갖게 하며 서로 돕는다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긍지와 보람을 갖게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새로이 정립해야 할 봉사활동 교육은 공동체적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교육이므로 교육 현장에서는 당면한 제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과 실제적인 탐구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추구 교육을 강화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행 8년째에 접어든 학생봉사활동의 교육적 효율성 극대화, 성인이 된 이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연계성 강화, 적절한 프로그램의 체계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봉사활동 유형과 봉사활동 지도 기관에 따라 형성되는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와 봉사 만족도 및 성인이 된 이후의 봉사지속의향 등의 봉사활동효과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학생봉사활동의 방안을 찾기 위해 봉사활동 유형과 지도 기관에 따른

봉사활동이 학생의 자아개념, 만족도, 봉사활동 지속의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봉사활동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의 고찰

봉사활동에 관한 연구는 많은 논문을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그 중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류형우(2000)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게 하는 활동으로 국가의 교육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그 문제점들로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점수 따기식의 형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흥미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김성국(2001)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 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신자(2001)는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족과 개인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활동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선진 외국처럼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의무적 봉사 시간과 자발적 봉사 시간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고 내신 반영 점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이남(1998)은 자발적 봉사활동 지도가 학생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자발적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유대 강화로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봉사활동은 영역을 안내해 주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의도된 활동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송순(2001)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청소년 봉사활동의 참여도, 참여 지속도, 활성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체계적 안내와 지도, 봉사지도기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이 정적 상관이 있는 관계로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수록, 봉사시간을 학교수업시간에 반영해 줄수록,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활동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봉사를 어떤 기술이나 능력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고 투입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조옥자(2002)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과 요구 조사 연구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전략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흥미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형진(2000) 역시 중학생 자원봉사활동 증대를 위한 유인 요소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는 신세대 중학생들의 다양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중학생들의 활동 영역이 위문활동, 캠페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유도해 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남쌍옥(1999)은 3가지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동안에 실시한 결과 봉사대상에 있어서 생명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가 무생명체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며 봉사지도 방식에 따라 학생봉사자들의 봉사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보다 광범위한 봉사대상과 봉사지도 방식으로 봉사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봉사활동의 효과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은 물론 봉사활동 유형이나 지도 기관에 따라 서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실제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유형과 지도기관에 따라 구분된 학생 집단에 대해 동일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실시한 후 각 집단별로 참여 학생들의 변화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학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G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자아개념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자아개념 수준이 비슷한 동질집단 64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유형(동아리, 개인)과 지도기관(학교, 봉사센터)에 따라 4집단에 각각 16명씩 무선 배정한 후 각각 20시간에 걸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사후 자아개념검사와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적인 활동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사후검사를 4개 집단에 16부씩 총 128부를 배부하여 전원 응답을 받아 100%의 회수율을 보여 유효자료 수는 128부(100%)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유형 | 기관 | 표본(명) | 백분율(%) |
|-----|------|-------|--------|
| 개인 | 학교 | 16 | 100 |
| | 봉사센터 | 16 | 100 |
| 동아리 | 학교 | 16 | 100 |
| | 봉사센터 | 16 | 100 |
| 계 | | 64 | 100 |

2. 봉사활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주제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쌀뜨물’을 활용하여 주변의 환경을 정화시키는 활동으로 선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자아개념 검사도구는 선행연구의 분석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개발한 설문지(김동배 외, 1996)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총 54문항

을 구성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봉사 만족도와 봉사활동 지속의향을 묻는 설문은 Likert식 9단계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여 사후검사만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영역과 내용 그리고 문항 수에 관한 구성 내용 및 신뢰도 계수로 산출된 Cronbach의 α 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자아개념검사의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자기이해도가 .83, 이타적 행동이 .83, 사회적 책임감은 .87, 교우 관계도는 .86으로 신뢰할 만한

<표 2>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

| 클럽 명칭 | 활동내용 | 운영 형태 | 지도 교사 | 봉사활동명 | 활동장소 |
|--------------------|---|--|------------|-----------------------|-----------|
| EM쌀뜨물 | 환경정화활동 | 개인·동아리활동 | OOO | EM활성액을 이용한 쌀뜨물 발효 재활용 | 가정·급식소 뒤뜰 |
| 활동목표 기대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나 동아리활동을 통해 친환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하여 유기 퇴비를 만들 수 있다. · EM 발효 미생물을 모아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 | | | | |
| 활동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뜨물을 이용한 환경 퇴비 만들기 · EM에 의한 환경 호르몬 원인 물질 차단 · 토양 속의 잔류 농약 분해를 위한 유용 미생물 만들기 | | | | |
| 활동의 구성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적 요소 - 우리 지역의 생활 폐수 줄이기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영속적인 하수의 재활용을 도모한다. · 학습적 요소 - EM쌀뜨물 발효 활동을 통해 체험학습을 실행해 본다. | | | | |
| 참가대상 | EM 쌀뜨물 발효활동자 | 참가인원 | 64 명 | | |
| 활동기간 | 3월11일~4월 8일 | 소요시간 | 총20회 20시간씩 | | |
|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준비 및 계획 수립단계 | <4집단 공통 활동> 1. EM발효액으로 하천을 정화시켜 관광지화한 일본의 사례를 VTR로 시청하게 한다. 2. EM활성액 발효방법을 학습한다. -쌀뜨물을 1.5리터 페트병에 가득 준비한다. ※준비사항 : 편안한 복장, 쌀뜨물, 1.5리터 페트병, 필기도구, EM활성액, 당밀 | | | |
| | 실천단계 | <학교기관 동아리집단 활동> 1. 식당에서 나온 쌀뜨물을 2드림을 받는다. 2.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쌀뜨물을 빌효통으로 이동시킨다. 3. 쌀뜨물과 당밀, EM액제를 정해진 분량만큼씩 넣어 잘 저어준다. 4. 발효통을 완전히 밀봉시킨다. | | | |
| | 평가단계 | <학교기관 동아리집단 활동> 1. 유용 미생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자가 평가해 본다. 2. 만든 유용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토의해 본다. 3. 환경 오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소감문을 적어 본다. | | | |
| 프로그램 진행시 지도자의 유의사항 | 1.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VTR을 시청하게 한다. 2. 우리 지역의 해양 및 토양 오염 정도와 부영양화의 지표를 제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 3. 환경 부활을 위한 선순화도 지도를 통해 지구 환경 부활 의지를 북돋운다. | | | | |

<표 3>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내용 및 신뢰도 계수

| 구분 | 영역 | 내용 | 문항수 | 역채점 문항 | 신뢰도 계수 |
|--------------|------------|--|-----|-------------------------|--------|
| 자아개념 검사 | 자기이해도 | · 자신감의 정도 · 일에 대한 용기 · 자아 정체성 | 14 | 2, 3, 5, 6, 8, 9, 11 | .83 |
| | 이타적 행동 | · 남을 돕는 정도 · 남을 도우면서 겪는 어려움의 감 수 정도 · 양보심의 정도 | 12 | 1, 6, 8, 9 | .83 |
| | 사회적 책임감 | · 양심의 정도 · 사회적 소속감의 정도 · 공동체 의식의 정도 | 13 | 1, 3, 5, 7, 8, 9 | .87 |
| | 교우 관계도 | · 친밀도의 정도, 계속성의 정도 · 일관성의 정도 | 15 | 1, 2, 4, 5, 6, 9 | .86 |
| 만족지속 의향설문 | 봉사만족도 | · 봉사활동 유형에 대한 만족도 · 봉사활동 지도기관에 대한 만족도 | 4 | · | .92 |
| | 봉사지속 의향 | · 지속성의 정도 | 1 | · | .91 |
| 전체 | | | 59 | 23 | .87 |

수준이었으며, 봉사만족도와 봉사지속의향 문항 또한 각각 .92, .91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시한 자아개념검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 분석하기 위하여 SPSS/PC(11.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둘째, 봉사활동 유형별, 지도기관에 따른 봉사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봉사활동 유형별 사전 자아개념 수준비교

| 구분 | 동아리 M(SD) | 개인 M(SD) | t값 | 자유 도 | p값 |
|------------|--------------|-------------|-------|---------|------|
| 자기 이해도 | 2.27(.20) | 2.28(.21) | -0.04 | 62 | .966 |
| 이타적 행동 | 2.51(.33) | 2.53(.41) | -0.19 | 62 | .849 |
| 사회적 책임감 | 2.45(.19) | 2.46(.19) | -0.09 | 62 | .923 |
| 교우 관계도 | 3.42(.31) | 3.32(.32) | 1.26 | 62 | .211 |
| 전체 | 2.66(.16) | 2.64(.16) | 0.45 | 62 | .651 |

IV. 연구 결과

1. 봉사활동 유형별 분석

가. 사전 비교

봉사활동 유형별로 대상 학생들에게 사전에 실

<표 4>에 의하면 동아리 집단이든지 개인 집단이든지 봉사활동의 두 유형간에는 자아개념의 사전 인식은 자기 이해도가 동아리 집단에서는 2.27, 개인 집단에서는 2.28로 나타나며, 교우 관

계도는 동아리 집단에서는 3.42, 개인 집단에서는 3.32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동아리와 개인 간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임을 의미한다.

나. 사후 비교

봉사활동 유형별로 대상 학생들에게 사후에 실시한 자아개념검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봉사활동 유형별 사후 자아개념 수준 비교

| 구분 | 동아리 M(SD) | 개인 M(SD) | t값 | 자유도 | p값 |
|---------|--------------|-------------|----------|-----|------|
| 자기 이해도 | 4.13(.44) | 3.27(.11) | 10.65*** | 62 | .000 |
| 이타적 행동 | 4.52(.14) | 3.06(.21) | 31.41*** | 62 | .000 |
| 사회적 책임감 | 4.65(.17) | 3.00(.48) | 18.13*** | 62 | .000 |
| 교우 관계도 | 4.39(.23) | 3.11(.26) | 20.50*** | 62 | .000 |
| 전체 | 4.42(.18) | 3.11(.22) | 25.50*** | 62 | .000 |

***:p< .001

봉사활동 유형간의 사후 검사 결과 자아개념 수준은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로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

<표 6> 봉사활동 유형별 사전-사후 자아개념 수준 비교

| 구분 | | 사전 M(SD) | 사후 M(SD) | t값 | 자유도 | p값 |
|-----|---------|-------------|-------------|----------|-----|------|
| 동아리 | 자기 이해도 | 2.27(.20) | 4.13(.44) | 21.83*** | 31 | .000 |
| | 이타적 행동 | 2.51(.33) | 4.52(.14) | 31.34*** | 31 | .000 |
| | 사회적 책임감 | 2.45(.19) | 4.65(.17) | 50.91*** | 31 | .000 |
| | 교우 관계도 | 3.42(.31) | 4.39(.23) | 14.21*** | 31 | .000 |
| | 전체 | 2.66(.16) | 4.42(.18) | 41.76*** | 31 | .000 |
| 개인 | 자기 이해도 | 2.28(.21) | 3.27(.11) | 23.12*** | 31 | .000 |
| | 이타적 행동 | 2.53(.41) | 3.06(.21) | 7.33*** | 31 | .000 |
| | 사회적 책임감 | 2.46(.19) | 3.00(.48) | 6.01*** | 31 | .000 |
| | 교우 관계도 | 3.32(.32) | 3.11(.26) | -2.91** | 31 | .007 |
| | 전체 | 2.64(.16) | 3.11(.22) | 11.20*** | 31 | .000 |

** : p< .01, ***:p< .001

인활동보다는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아개념 수준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다. 사전-사후 비교

봉사활동 유형별로 대상 학생들에게 사전과 사후에 실시한 자아개념검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봉사활동 유형별로 사전-사후 자아개념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하위영역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리와 개인에 상관없이 자기이해도, 이타적 행동, 사회적 책임감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더 높아졌다. 반면에 개인활동의 경우 교우 관계도 인식은 봉사활동 이후에 오히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사전-사후간 수준 변화 차이 비교

봉사활동 유형별로 사전-사후 자아개념 수준의 변화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하위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집단이 자아개념 수준이 높아졌지만 개인 활동보다는 동아리활동이 사전-사후 검사간 자아개념 수준 차이가 더 크

<표 7> 봉사활동 유형별 사전-사후 수준 변화 차이 비교

| 영역 | 동아리 M(SD) | 개인 M(SD) | t 값 | 자유도 | p 값 |
|---------|--------------|-------------|----------|-----|------|
| 자기 이해도 | 1.85(.48) | 0.99(.24) | 9.04*** | 62 | .000 |
| 이타적 행동 | 2.01(.36) | 0.53(.41) | 15.21*** | 62 | .000 |
| 사회적 책임감 | 2.20(.24) | 0.54(.51) | 16.56*** | 62 | .000 |
| 교우 관계도 | 0.97(.38) | -0.20(.39) | 12.01*** | 62 | .000 |
| 전체 | 1.75(.23) | 0.46(.23) | 21.83*** | 62 | .000 |

***:p<. 001

게 나타남으로써 개인보다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이 효과가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2.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분석

가. 사전 비교

봉사활동 지도기관별로 대상 학생들에게 사전에 실시한 자아개념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지도기관별 대상 학생의 사전 자아개념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사전 자아개념 수준 비교

| 구분 | 학교 M(SD) | 봉사센터 M(SD) | t 값 | 자유도 | p 값 |
|---------|-------------|---------------|-------|-----|------|
| 자기 이해도 | 2.28(.20) | 2.27(.20) | 0.04 | 62 | .966 |
| 이타적 행동 | 2.56(.44) | 2.47(.29) | 0.96 | 62 | .338 |
| 사회적 책임감 | 2.45(.19) | 2.45(.19) | -0.09 | 62 | .923 |
| 교우 관계도 | 3.35(.34) | 3.38(.29) | -0.31 | 62 | .756 |
| 전체 | 2.66(.18) | 2.65(.14) | 0.38 | 62 | .701 |

<표 10>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사전-사후 자아개념 수준비교

| 구분 | | 사전 M(SD) | 사후 M(SD) | t 값 | 자유도 | p 값 |
|------|---------|-------------|-------------|----------|-----|------|
| 학교 | 자기 이해도 | 2.28(.20) | 3.84(.61) | 13.75*** | 31 | .000 |
| | 이타적 행동 | 2.56(.44) | 3.90(.71) | 8.64*** | 31 | .000 |
| | 사회적 책임감 | 2.45(.19) | 4.03(.66) | 12.88*** | 31 | .000 |
| | 교우 관계도 | 3.35(.34) | 3.92(.63) | 4.55*** | 31 | .000 |
| | 전체 | 2.66(.18) | 3.92(.63) | 10.68*** | 31 | .000 |
| 봉사센터 | 자기 이해도 | 2.27(.20) | 3.56(.40) | 15.56*** | 31 | .000 |
| | 이타적 행동 | 2.47(.29) | 3.68(.79) | 8.44*** | 31 | .000 |
| | 사회적 책임감 | 2.45(.19) | 3.63(1.07) | 6.09*** | 31 | .000 |
| | 교우 관계도 | 3.38(.29) | 3.58(.70) | 1.69 | 31 | .100 |
| | 전체 | 2.65(.14) | 3.61(.71) | 7.83*** | 31 | .000 |

***:p<. 001

나. 사후 비교

봉사활동 지도기관별로 대상 학생들에게 사후에 실시한 자아개념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사후 자아개념 수준 비교

| 구분 | 학교 M(SD) | 봉사센터 M(SD) | t 값 | 자유도 | p 값 |
|---------|-------------|---------------|-------|-----|------|
| 자기 이해도 | 3.84(.61) | 3.56(.40) | 2.15* | 62 | .035 |
| 이타적 행동 | 3.90(.71) | 3.68(.79) | 1.13 | 62 | .263 |
| 사회적 책임감 | 4.03(.66) | 3.63(1.07) | 1.81 | 62 | .075 |
| 교우 관계도 | 3.92(.63) | 3.58(.70) | 1.99 | 62 | .051 |
| 전체 | 3.92(.63) | 3.61(.71) | 1.81 | 62 | .074 |

*:p<. 05

봉사활동 지도기관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자기 이해도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타적 행동, 사회적 책임감, 교우관계도 영역은 학교가 봉사센터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봉사센터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이 자아개념의 인식변화에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전-사후 비교

봉사활동 지도기관별로 대상 학생들에게 사전-사후 자아개념 수준의 변화된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사전-사후 자아개념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로도 봉사센터의 교우 관계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기관과 봉사센터에 상관없이 자기이해도, 이타적 행동, 사회적 책임감이 사전에 비해

사후에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봉사센터의 교우관계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원인으로서는 원래 교우관계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높아 봉사활동 후에 더 높은 교우관계 정도를 보이기에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사전-사후간 수준 변화 차이 비교

봉사활동 지도기관별로 사전과 사후 인식 차이에 대한 간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사전-사후 수준 변화 차이 비교

| 영역 | 학교 M(SD) | 봉사센터 M(SD) | t 값 | 자유도 | p 값 |
|---------|-------------|---------------|-------|-----|------|
| 자기 이해도 | 1.56(.64) | 1.28(.46) | 1.99 | 62 | .051 |
| 이타적 행동 | 1.33(.87) | 1.21(.81) | 0.58 | 62 | .563 |
| 사회적 책임감 | 1.57(.69) | 1.16(1.08) | 1.79 | 62 | .077 |
| 교우 관계도 | 0.56(.70) | 0.20(.68) | 2.08* | 62 | .041 |
| 전체 | 1.25(.66) | 0.96(.69) | 1.71 | 62 | .091 |

*:p<. 05

봉사활동 지도기관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간 변화된 수준의 정도 차이는 교우관계도 영역을 제외하고 전체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센터를 통한 것보다 학교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교우관계도가 더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그 외 자기이해도, 이타적 행동, 사회적 책임감, 교우관계도 영역에서 학교가 봉사센터보다 사전 사후 인식 차가 근소한 차이지만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봉사센터보다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자아개념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봉사활동 유형별 지도기관별 만족도 및 지속의향 분석

가. 봉사활동 유형별 비교

봉사활동 유형별로 대상 학생들의 봉사 만족도 및 지속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봉사활동 유형별 봉사 만족도 및 지속의향 비교

| 구분 | 동아리 M(SD) | 개인 M(SD) | t값 | 자유도 | p값 |
|---------------|----------------|----------------|----------|-----|------|
| 봉사 활동 | 8.16 (0.92) | 7.06 (1.34) | 3.08*** | 62 | .000 |
| 프로 그램 | 8.09 (1.00) | 7.25 (1.52) | 2.62* | 62 | .011 |
| 활동 유형 | 8.09 (0.86) | 5.69 (0.86) | 11.22*** | 62 | .000 |
| 지도 기관 | 8.56 (0.62) | 6.28 (1.08) | 10.33*** | 62 | .000 |
| 봉사만족 도(전체) | 8.22 (0.45) | 6.57 (0.49) | 14.03*** | 62 | .000 |
| 봉사지속 의향 | 8.22 (0.75) | 7.06 (0.91) | 5.53*** | 62 | .000 |

*:p<.05, ***:p<.001

봉사활동 유형별 만족도 및 지속의향은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14> 지도기관 내 봉사활동 유형별 만족도 및 지속의향 비교

| 구분 | | 동아리 M(SD) | 개인 M(SD) | t값 | 자유도 | p값 |
|------|-----------|--------------|-------------|----------|-----|------|
| 학교 | 봉사활동 | 8.25(0.86) | 6.94(1.18) | 3.59*** | 30 | .001 |
| | 프로그램 | 8.25(1.00) | 6.75(1.53) | 3.28** | 30 | .003 |
| | 활동유형 | 8.50(0.73) | 5.88(1.02) | 8.34*** | 30 | .000 |
| | 지도기관 | 8.81(0.40) | 6.56(1.21) | 7.06*** | 30 | .000 |
| | 봉사만족도(전체) | 8.45(0.38) | 6.53(0.39) | 13.82*** | 30 | .000 |
| | 봉사지속의향 | 8.50(0.73) | 6.88(0.96) | 5.39*** | 30 | .000 |
| 봉사센터 | 봉사활동 | 8.06(1.00) | 7.19(1.52) | 1.92 | 30 | .063 |
| | 프로그램 | 7.94(1.00) | 7.75(1.39) | 0.43 | 30 | .664 |
| | 활동유형 | 7.69(0.79) | 5.50(0.63) | 8.62*** | 30 | .000 |
| | 지도기관 | 8.31(0.70) | 6.00(0.89) | 8.12*** | 30 | .000 |
| | 봉사만족도(전체) | 8.00(0.39) | 6.60(0.58) | 7.86*** | 30 | .000 |
| | 봉사지속의향 | 7.94(0.68) | 7.25(0.86) | 2.51*** | 30 | .000 |

** : p < .01, *** : p < .001

이는 봉사활동을 한 사실에 대한 만족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활동유형에 대한 만족도, 활동지도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지속의향 정도가 개인보다 동아리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나.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비교

봉사활동 지도기관별로 대상 학생들의 봉사 만족도 및 지속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봉사활동 지도기관별 봉사 만족도 및 지속의향 비교

| 구분 | 학교 M(SD) | 봉사센터 M(SD) | t값 | 자유 도 | p값 |
|---------------|-------------|---------------|-------|---------|------|
| 봉사활동 | 7.59(1.21) | 7.63(1.34) | -0.09 | 62 | .922 |
| 프로그램 | 7.50(1.48) | 7.84(1.19) | -1.02 | 62 | .311 |
| 활동유형 | 7.19(1.60) | 6.59(1.32) | 1.62 | 62 | .109 |
| 지도기관 | 7.69(1.45) | 7.16(1.42) | 1.48 | 62 | .143 |
| 봉사만족 도(전체) | 7.49(1.05) | 7.30(0.86) | 0.78 | 62 | .438 |
| 봉사지속 의향 | 7.69(1.18) | 7.59(0.84) | 0.36 | 62 | .715 |

봉사활동 지도기관에 따라서는 두 집단간에 만족도 및 지속의향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들의 특성상 봉사활동 자체를 누구랑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집단의 지도를 받아서 하느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지도기관 내 봉사활동 유형별 비교

지도기관 내 봉사활동 유형별로 대상 학생들의 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지도기관 내 봉사활동 유형간의 봉사 만족도 및 지속의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봉사센터 지도기관 내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동아리를 통한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활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도기관에 상관없이 봉사활동, 프로그램, 활동유형, 지도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보다 동아리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높고, 봉사 지속의향도 개인보다 동아리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라. 봉사활동 유형 내 지도기관별 비교

<표 15> 봉사활동 유형 내 지도기관별 만족도 및 지속의향 비교

| 구분 | | 학교 M(SD) | 봉사센터 M(SD) | t값 | 자유도 | p값 |
|-----|-----------|-------------|---------------|--------|-----|------|
| 동아리 | 봉사활동 | 8.25(0.86) | 8.06(1.00) | 0.57 | 30 | .573 |
| | 프로그램 | 8.25(1.00) | 7.94(1.00) | 0.88 | 30 | .383 |
| | 활동유형 | 8.50(0.73) | 7.69(0.79) | 3.01** | 30 | .005 |
| | 지도기관 | 8.81(0.40) | 8.31(0.70) | 2.46* | 30 | .020 |
| | 봉사만족도(전체) | 8.45(0.38) | 8.00(0.39) | 3.25** | 30 | .003 |
| | 봉사지속의향 | 8.50(0.73) | 7.94(0.68) | 2.25* | 30 | .032 |
| 개인 | 봉사활동 | 6.94(1.18) | 7.19(1.52) | -0.52 | 30 | .607 |
| | 프로그램 | 6.75(1.53) | 7.75(1.39) | -1.93 | 30 | .062 |
| | 활동유형 | 5.88(1.02) | 5.50(0.63) | 1.24 | 30 | .223 |
| | 지도기관 | 6.56(1.21) | 6.00(0.89) | 1.49 | 30 | .145 |
| | 봉사만족도(전체) | 6.53(0.39) | 6.60(0.58) | -0.44 | 30 | .661 |
| | 봉사지속의향 | 6.88(0.96) | 7.25(0.86) | -1.16 | 30 | .252 |

*:p< .05, **: p< .01

봉사활동 유형 내 지도기관별로 대상 학생들의 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의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봉사활동 유형 내 봉사활동 지도기관에 따른 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의향은 동아리 봉사활동 유형에 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개인 봉사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 봉사활동 유형내에서는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지도기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활동유형과 지도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봉사센터보다는 학교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높았고, 지속의향도 봉사센터보다 학교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 봉사활동 유형내에서는 봉사센터와 학교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 간에는 만족도와 지속의향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봉사활동 유형별로 동아리 활동이 개인

활동보다 자아개념의 변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류형우(2000), 이이남(1998), 조옥자(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역할 및 책임의식이 학생의 자아개념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다양한 주별, 월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또래집단 지도자 양성을 통해 중학생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의식·사회공동체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봉사활동 지도기관별로 분석해 본 사전 사후 인식 차이에서는 봉사센터를 통한 것보다 학교를 통하여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이 자아개념에 다소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순(2001), 이형진(2000)의 연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도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교사의 의지와 전문성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네트워크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별 전문가 집단 양성에 힘써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봉사활동 유형 내 봉사활동 지도기관간의 봉사만족도와 봉사지속의향은 동아리 봉사활동 유형에 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봉사활동 유형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성국(2001), 이신자(2001)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성개발 측면에서 동아리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동아리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 동아리 지도단체에도 국가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중학생 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지도 및 활성화에 교육적 의의를 높이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중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체험적인 지도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연수를 실시·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교사 임용조건에 최소한의 봉사시간을 획득한 자에 한해 임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 장소를 안내하고 결연 기관과의 연계망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학교에서도 평일에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 안팎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교육당국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 봉사활동 실행 전후 인식의 차이를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조사 연구이므로 면접법과 참여관찰 등의 질적 연구방법으로 동아리 봉사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봉사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봉사학습 경험을 통해 진로 선택이나 간접 경험 등을 얻게 하는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앞으로의 사회에 대처하고 실생활에 접근하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의 자세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 봉사활동 지도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겠다.

참고 문헌

- 교육개혁위원회,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교육부, 1995.
- 김동배·조학래, 청소년자원봉사의 길잡이, 동인, 1996.
- 김성국,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 사회과학 대학원, 2001.
- 남쌍옥, 봉사대상과 봉사지도 방식에 따른 봉

- 사효과의 차이,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 류형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대학원, 2000.
- 송 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2001.
- 이신자,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대전대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 행정대학원, 2001.
- 이이남, 자발적 봉사활동 지도가 학생의 인성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전라북도 교육청, 1998.
- 이형진, 중학생 자원봉사활동 증대를 위한 유인요소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대구효성카톨릭대 대학원, 2000.
- 조옥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학생의 인식과 요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대 교육대학원, 2002.
- 차타순, 자기에적 성격성향과 소외감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4(1), pp.27~42, 2002.